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! 새로운 국민의 나라

보도시점 2023. 12. 5.(화) 06:00 < 12.5.(화) 석간 > 배포 2023. 12. 4.(월)

정부-자동차 업계가 물가 안정에 힘을 모은다

- 자동차 가격 등 시장동향 모니터링을 정례화하고, 차량 가격안정화 등에 노력키로

산업통상자원부(장관 방문규)는 12.5.(화) 서울 자동차회관에서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한 「자동차 업계 간담회」를 개최하였다. 이날 회의에는 현대차·기아 및 한국지엠, KG모빌리티, 르노코리아를 비롯하여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(KAMA)가 참석하였으며 정부와 업계는 원자재, 인건비, 공급망 상황 등 자동차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고 가격 안정화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다.

자동차 업계에서는 “최근 철광석, 알루미늄, 플라스틱 등 원자재 가격은 안정화 추세”라고 설명하는 한편 “11월 코리아세일페스타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노력하였다”고 밝혔다. 향후에도 “중저가 친환경차 출시 확대, 원자재의 장기계약을 통한 수급 안정화 등을 통하여 물가 안정화에 최대한 노력하겠다”고 언급하였다.

박동일 제조산업정책관은 “자동차는 국민 생활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자동차 업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물가 안정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”고 당부하였으며, 정부는 “액화석유가스(LPG) 트럭을 구입하는 자영업자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도 상반기 차량용 액화석유가스(LPG) 관세를 기본세율 3%에서 0%로 낮출 예정”이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제조산업정책관 자동차과	책임자	과 장	최보선 (044-203-4320)
		담당자	주무관	권재환 (044-203-4323)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